

NEWS

2025년 9월 8일 월요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카운트다운

조계원 “관광시설 안전 필수”
캠핑장 사고 5년간 39명 사망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6월) 전국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6건으로, 사망 39명·부상 6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질식이 23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 14건, 가스폭발 5건, 차량 사고 5건, 자연재해 3건, 물놀이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들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보완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평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지역만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수준이다. 조계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시설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프랜차이즈산업 기반 마련”
강수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프랜차이즈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는 지역 프랜차이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시장은 매년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신용보증지원, 경영역량 강화 교육, 법률 상담, 박람회 개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프랜차이즈산업 발전협의회를 설치해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와 중앙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강수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을 넘어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청년과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

D-365일 기념행사…성공 기원 세리머니·드론쇼 등
국내외 홍보 강화·참가국 유치 확대 등 본격 준비

전남도가 1년 앞으로 다가온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여수시,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5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 D-365 기념행사를 열었다. 섬박람회 개최 1년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향한 도약의 신호탄으로 펼쳐졌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관 민간위원장, 김진표 명예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여수시민, 국내외 관람객 등 2000여명이 함께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해외 순방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김

영록 지사는 “섬과 바다가 가진 무한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전남이 앞장서 열겠다”며 도민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행사는 여수시립국원단과 어린이합창단의 사전공연, AI다섯이가 함께하는 입장권 오픈 카운트다운, 내빈 소개와 인사말, 축하영상 메시지, 성공기원 세리머니, 드론쇼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섬박람회 마스코트 ‘다섯이’가 AI로 등장해 사회를 맡아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분위기를 더했으며, 특히 LED 팔찌를 활용한 세리머니와 불꽃 드론쇼는 섬박람회의 비전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현장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명창환 부지사는 “2026 여수세계섬박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5일 여수세계박람회장 해양광장에서 열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D-365 기념행사’에서 주요 내빈들과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람회는 전남과 여수만의 행사라 아니라, 섬과 해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세계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다”며 “전남도는 성공 개최를 위해 여수시와 긴밀

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 지원 TF를 구성하고, 지난 3일 kick-off 회의를 시

작으로 도정 전 분야에 체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시, SRF 2100억 증액 논란…중재 규칙 개정 추진

포스코이앤씨 증액행위 편법 지적…태도 변화 압박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시설 관련 포스코이앤씨로부터 2100억원의 증액 청구를 당한 한 광주시가 업체측의 편법 행위를 지적하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근혜 의원(광주 광산구갑)에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 SRF 위탁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주민 반발로 나주열병합발전소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년 남짓 가동이 중단되자 운영비용 손실액 78억원을 광주시

에 요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배상액에 대해 시가 의견을 보이지 않던 시를 정정하라는 취지를 보여가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기로 합의한 뒤 올 초 중재 신청 취지를 변경해 일방적으로 청구액을 27배 늘린 2100억원으로 증액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진행됨에 따라 중재 결정에 따라 광주시는 전문학적 액수를 한 번에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 중재법과 국내 중재규칙에는 중재 도중 청구액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중재 신속절차에서만 신청금액

을 1억원 이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예외만 있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이를 이용, 편법으로 증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 규정이 유지되면 유사한 피해가 다른 공공기관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시민단체와 함께 박근혜 의원을 통해 규칙 개정 요구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며, 중재 규칙 제·개정 시 대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광주시 중재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실효성은 미지수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전남도는 9월부터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지방비 보조율을 대폭 상향했다. 이는 10t 미만 소규모 연근해 어선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어선원 보호를 강화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보상하는 정부 정책 보험이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모든 어선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어선

등급별 지방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3t 미만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2%로, 3~5t은 20%에서 15%로, 5~10t은 22%에서 17%로 낮아져 소규모 어업인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9월 신규 가입하는 어선원 보험부터 상향된 지원율이 적용되며, 올해 이미 가입한 보험 가입자는 정산 후 내년 초에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박정렬 기자 holbul@

무주택자 LTV 40%…1주택자 전세한도 2억 9·7 부동산 대책…15억원 미만 주택 등 영향

8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규제지역 LTV 강화 2025년 9월 8일 시행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무주택자·처분조각부 1주택자의 LTV 상한 한도 50% → 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LTV 제한 9월 8일 시행	규제지역 한도 30% → 0% 수도권 비규제지역 한도 60% → 0%
전세대출 한도 9월 8일 시행	1주택자 수도권 기존 현행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2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 →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대출한도 2억 원으로 일괄화 *1주택자의 주택·소재지와 상관없이 적용

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일괄 조정된 것이다. 다만, 7일까지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주택에 살면서 전세대출을 만기 연장하면 중전 한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전세 갈아타기’나 대출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 기존 보증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의 약 30%가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약 65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대다수는 SGI 대출 이용자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BAROYEON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새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